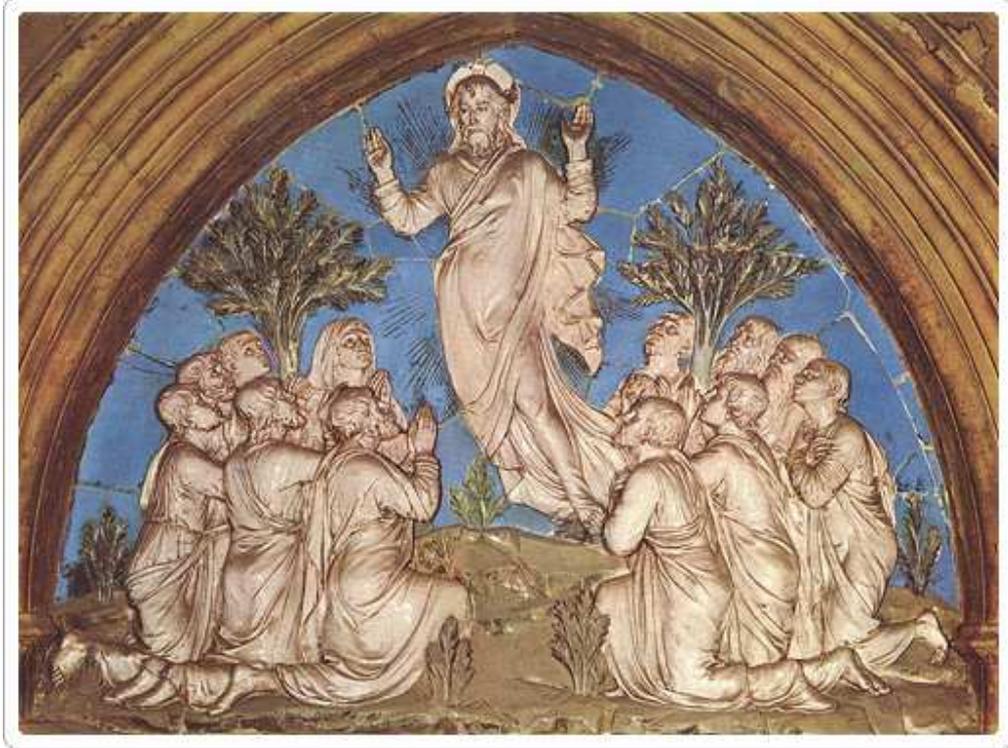


2013 5.12 예수승천 대축일(이동)

제 1 독서 : 사도행전 1,1-11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제 2 독서 : 에페소서 1,17-23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복 음 : 루카 24,46 L-53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베이크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은 부활제 7 주일 이지만 미국 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5 개 교구만을 제외하고는 지난 목요일의 예수승천 대축일을 오늘주일로 이동하여 지냅니다. 집에가셔서 오늘 부활대축일의 독서와 복음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제 7 주일의 제 1 독서를 보면 스테파노성인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후 바로 일어난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하신일과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구세주이셨다는 것을 증언하시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테파노가 어떻게 죽습니까?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스테파노성인이 아파서 울부짖으며 고통스럽게 죽어 가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죽는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이는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하여 우리조상님들께서 순교하실때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셨습니다. 칼을 든 형리에게 어떻게 목을 대어주면 좋겠느냐고 하셨고, 순교하게 된것을 감사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웃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지만 스테파노 성인도, 김대건신부님도 마치 그 순교의 순간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기쁘고 행복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사제인 저도 믿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이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도 항상 경험하는 일이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저에게 따져대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보았냐고? 예수님을 만났느냐고? 그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명할수 있냐고 따지곤 합니다. 그러면 제가 되물어 봅니다. “당신은 이순신장군이 있었다고는 믿습니까?” 물론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순신장군을 보았냐고?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순신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실제로 있었다고는 증명할수 있습니까? 하며는 그들은 역사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역사인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만 사람의 마음은 그 자신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바꾸어놓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바꾸지를 못하십니다. 성령체험을 하신분들이 성령대회에서 예수님을 찬미하고 기쁨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지만 일상 생활로 돌아오면 다시 무덤덤해지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자신들이 이 세속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인성녀들께서는 하느님의 기쁨을 체험하신분들 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이세상에서 받은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 바치신 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땅에서 탈출을 하였고, 홍해를 건너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하느님을 체험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어떤 생활을 하였습니까? 하느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았고 결국에는 하느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그들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내것으로 삼아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서 그런 아낌없는 사랑의 능력들이 나오시는 지 놀라울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자식들은 모릅니다. 하느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는 커녕 불효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냉담 교우한분이 오래간만에 성당 미사에 참여하시고는 왜 이성당은 언제나 똑같은 성가만 부르냐고 하였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지난주일 강론때에 개인주의 와 이기주의에 대하여 말씀 드렸듯이 개인주의는 내가 알고 배우고 거기에 대한 지식으로 나의 생각들을 키워 나가고 행동을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를 통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성서를 통하여 지식을 쌓고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고, 교회법을 따르며 그 안에서 나의 생각과 행동들을 정해가며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기주의는 그냥 내 느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의 인터넷상에 나타나는 댓글들을 보면 거의 폭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저지른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를 않고 그 결과만 가지고 한사람을 자기 생각대로 감정가는대로 막말을 해가며 생매장 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일에 봉사 하시는 분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박히시게 하는 일은 아닌지를 잘 헤아려야만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께서 자식들을 대하시는 것을 보면 두분들이 조금은 격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웃고 울고 하십니다. 자식이 조금만 잘되어도 세상을 얻은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 하십니다.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가슴 아파하시다가도 조금만 위로를 해드려도 금방 다 잊으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인간적인, 세속적인 면으로 보면 어머니께 원망이 생기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어머니는 항상 저의 보호자이셨습니다. 군대생활을 할때도 그랬고 지금 신부 생활을 하면서도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벌써 옷을 벗었을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에게 언제나 보호자역할을 하여 주십니다.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지만 그래도 더 살아만 계셔 주시기를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비록 삶에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뜻깊은 어머니날을 보내며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며, 어머니의 크신 사랑보다도 더큰 하느님의 사랑으로, 힘든 삶에 위로를 얻고 그 사랑으로 평화와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1-11

1 테오필로스 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2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3 그분께서는 수난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 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6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킬 때입니까?” 7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8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9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10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1,17-23<또는 히브 9,24-28; 10,19-23>

형제 여러분,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18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19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20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21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22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24,46 ~ 5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6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47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48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49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50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51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52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53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